

2017년 12월 19일, 애월읍 하귀2리 하귀2리노인회관, 강경민 조사.
변문호(남, 1933년생, 애월읍 하귀2리)

- 줄거리: 부잣집 머슴이 있었는데, 요구하는 대로 전부 해주는 것을 보고 주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. 주인이 머슴에게 좋은 밭이 있는데 앞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. 머슴은 그 밭을 옮기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 버렸다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머슴은 사람으로 환생한 여우였다.

[제보자] 부잣집이 종으로 사는데. 이게 허는 거 보민 착허기도 허고, 요구허는 건 다 헤다 주난 말이라. 겨울이라도 참외 먹肯 허믄 참외 사다 줄거. 멀위 먹肯 헤도 사다준다 말이야.

아. 이상하다 생각헌 거야. ‘이렇게 혈 수가 없는데. 이상하다.’ 허연.

주인이 이걸 알아봐야 허겠다 허연.

“나. 원 혼 가지 혈 게 잇는디 허지 못행 아이 듬키여.”

“뭣이우꽈?”

“저. 저쪽에 가면은 민득허게 좋은 밭이 있는데. 난 그런 밭이 엇언. 그 밭을 오레 들러다 젖이믄 내가 한이 엇이켜.”

이렇게 골앗단 말이여. 골으니까

“경 헤 봅주.”

그래서 가가지고 네 귀에 지렐 멧 갤 만들어가지고 막 헷어. 두드리민 헤싸지곡, 두드리민 헤싸지곡 헤서. 도저히 못 허거든. 그러니까 오라가지고

“아이고. 나 잘못헤젖우다. 그냥 가쿠다.”

hen. 그게 그때는 옛날이였던 모양인데. 그 사람이, 사람이 아니고 환생한 여우였다고 해. 그래서 기냥 떠났다고.

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허더라고. 그추룩 아니 헷이믄. 집이서 말 잘 듣는 체허당 완전히 집 망허곡. 옛날엔 경 헤낫던 모양이라.

- 핵심어: 여우, 종, 머슴, 밭(밭), 환생, 겨울, 참외, 멀위(머루), 지레